

MESSAGE

인사말

세상은
아름다우면서도
척박합니다.

각자 느끼는
삶의 무게는
다르지만
고단한 짐을
서로 나누면
희망이 배가된다고
믿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양영태



세상은 아름다우면서도 척박합니다.

각자 느끼는 삶의 기쁨과 고단한 짐의 무게는 서로 다르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름다움과 기쁨, 힘든 세월과 고단한 짐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희망과 위안이 배가된다고 믿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창립 시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으로 공익활동을 시작하여
18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공익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여 두루와 지평이 힘을 합쳐 공익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평과 두루의 구성원들은 공익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시대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실천한 2017년 한 해의 공익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지뢰 피해자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장애인단체와 힘을 합쳐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을 제공하여
영화관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도 출간했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지평과 두루의 구성원들은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지평과 두루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